

알림

2022 한라일보 신춘문에 당선작

2022 한라일보 신춘문에는 시와 소설 부문에서 당선작이 나왔습니다. 시조 부문은 아쉽게도 당선작을 내지 못했습니다. 새해에 탄생한 우리 문단의 새별을 소개합니다.

· 당선자와 당선작		
시	당선	김미경(제주시) '엄마 달과 물고기'
시조	당선작 없음	
소설	당선	차수진(충남 천안) '똥'

· 심사위원		
시	본심 - 김수열(시인) 서안나(시인) / 예심 - 최금진(시인) 장이지(시인)	
시조	본심 - 오승철(시인) 홍성운(시인) / 예심 - 한희정(시인) 홍경희(시인)	
소설	본심 - 고시홍(소설가) 김재영(소설가) / 예심 - 양해영(소설가) 노대원(평론가)	

시상식은 1월 13일(목) 오후 2시 한라일보 3층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한라일보

새해 벽두 내보일 새로운 목소리 찾지 못했다

시조 심사평

완성도 높은 참신한 작품은
다음 해 신춘문에 기대하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문학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마스크로 대변되는 시대의 자화상 앞에서 '신춘문예'라는 기대와 설렘을 갖는 것은 사치일까.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가져본 생각이다.

예심을 거쳐 올라온 작품은 모두 40여 편(8명)이다. 우리는 어느 한편의 시조가 새해 벽두에 희망의 환한 불씨가 되길 기대하면서 각각의 작품을 속독하고 논의했다. 좋은 시조를 쓴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과 감각, 그리고 깊은 사유와 고뇌에서 비롯되며, 문장과 율격을 살피고 이미지를 잘 살려 묘사와 진술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오랜 논의 끝에 '제천(祭天)', '모를 심다', '노을 점묘'를 최종 심에 올렸다. 작품 '제천(祭天)'은 4수(首)로 된 연시조로 제단이나 탑 등을 통해 '인간의 난처한 곳'을 환유하고 하늘에 올리는 제의를 형상화했다. 이러한 신화적 사유가 얼핏 눈에 들어오지만 몇몇 곳에서 시조의 율격이 크게 벗어나고 설명적인 부분이 많아 작품의 긴장감을

떨어뜨린다. '모를 심다'는 2수로 된 연시조로서 '모(禾)'의 동음이의어인 '모(母)', 즉 기표와 기의를 절묘하게 결합하여 모(禾)를 모(母)로 환치하여 어머니의 희생성과 아낌없이 내주는 벼의 속성을 등치하여 시편을 꾸렸다. "어머니를 심으면/ 따뜻한 밥이 될까"나 "길가에 빈 몸으로 선/ 한 묶음의 어머니"와 같은 시구에 시선이 머문다. 그렇지만 시상의 깊이가 한계로 느껴진다. '노을 점묘'는 그림을 그리듯 점층적으로 시상을 펼쳐나간다. 마치 자동차가 평지를 주행하듯 맛있게, "서녘의 화첩을 열어 안식에 들고 있다"는 넋쟁수에 이르러야 비로소 시조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시조는 풀림보다 압축의 미를 견지하지 않는다.

오랜 논의 후에 새해 벽두에 내보일 새로운 목소리를 지닌, 미래의 가능성이 돋보이는, 완성도가 높은 그런 참신한 작품을 우리는 찾지 못했다.

<심사위원=오승철(시인), 홍성운(시인)>



오승철



홍성운



물고기는 내 오빠다
오빠가 물고기인줄 알면서도 내 엄마 달은 물살에 휩쓸려 떠밀려가는 물고기를 잡지 못한다
그러나 엄마는 달이다
눈물이 없는 달
우리가 잠든 밤마다 환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하면서 놀라고 걱정스럽게 만드는 달 말이다
이런 달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생각만 많다
물거품이 이는 곳에 가면 은빛 곡선을 가진 오빠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아기가 발을 핏고 있어서 젖 물릴 때가 됐다고 한다
물고기의 얼굴은 내 얼굴
우리는 형제다
물속에 잠긴 달이 운구릉을 헤적거리다 곱은다리에서 암흑 속으로 내려간다
이번에는 검은 그림자에 싸여 비틀거리는 아빠도 함께다
그러나 엄마는 달이다
힘이 세다.



삽화=신기영

수축상

대통령표창

고 성 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부: (故)고종환 · 모: 이성순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족일동

수축상

대통령표창

고 성 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부: (故)고종환 · 모: 이성순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삼양동위원회

위원장 양재웅 외 위원 일동

수축상

녹조근정훈장

이 지 훈
(前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한 前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님의 41년 11개월간 공직기간 동안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국궁 백록정 회원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궁 서귀포시 백록정

사 두 문 은 배 외 회원 일동

승진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부이사관

김 창 유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부이사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慶州金氏益和君派厦祥公後孫 宗親會